

## 새의 학기 도약 멀트플 가드

## ② 장성

## ⑤ ‘치유의 숲’ 거듭나는 축령산

# 울울창창 편백나무...아토피 특효 '피톤치드' 뿐어내

수백만 그루의 아름드리 편백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이 거침없이 쭉쭉 뻗은 장성 축령산(해발 620m) 자락.  
아토피염을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  
와 이마에 송골송골 맷힌 땀을 훔치며 숲길을 걷는 가족,  
나무그늘에 자리를 펴고 편하게 쉬고 있는 노부부,  
나무줄기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훌체어를 탄 환자 ...  
축령산 숲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적인 풍경이다.

서삼면 추암리 괴정마을과 북일면 금곡영화마을을  
잇는 6km의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걷노라면 문명으로부  
터 멀찍이 떨어진 원시림 같은 ‘고요함’과 이따금 들리  
는 빼꾸기 울음소리, 시원한 산바람, 갓 피어난 보랏빛  
산수국속에서 ‘진초록’ 숲속 빛깔로 동화(同化)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또 가슴을 열고 길게 숨을 들이 쉬면 한결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바로 편백나무에서 품어내는 ‘피톤치드’(phytoncide) 성분 때문이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병원균이나 해충·곰팡이 등에 저항하려고 분비하는 물질. 이를 흡수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심폐기능을 튼튼히 할 뿐만 아니라 강한 살균 작용이 있어 아토피 피부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주목 등 침엽수에 피톤치드 발생량이 많다. 이 중에서 편백나무의 피톤치드 방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시간대가 가장 활발하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삼림욕의 명소로 부각되며 ‘건강’을 위해 축령산 편백나무숲을 찾는 이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22세기 후손에게 물려줄 숲=전국 최대의 조림 성공지로 평가받는 축령산 편백나무숲은 한 임업인의 20여 년에 걸친 고집스런 열정의 산물이다. 춘원 임종국(1915~1987) 선생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벌거숭이가 돼버린 축령산 일대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일생을 걸었다. 1957년부터 1976년까지 596ha(180만평)에 무려 253만여 그루의 편백나무와 삼나무를 심었다. 그 과정에서 집과 논밭을 처분한 것 드물자라 큰 비용 지면서까지 조림은 계속해 만년에

도 노자라 큰 빚을 지면서까지 소립을 계획해 말년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지면서 애써 가꾼 숲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벌목 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02년 산림청에서 사유림 경영의 역사성과 학술적인 가치를 감안해 편백나무숲 153㏊, 삼나무숲 37㏊, 낙엽송숲 50㏊ 등 모두 258㏊(78만평)의 숲을 사들였다. 축령산 숲은 수령 30~50년생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주종을 이루며 1㏊(3천평)당 나무 밀도도 700~2천500그루나 된다. 이러한 결과 축령산은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이름다운 숲’과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 치유의 숲 대상지로 선정=축령산은 올해 초 산립청이 주관하는 ‘치유의 숲’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축령산에는 국비 20억원이 투입돼 ▲ 건강증진센터 ▲보행식 물 치유시설, 테라피 로드 등 치유공간 ▲숲해설·숲 체험공간 ▲쉼터·편의시설·전망대 등 서비스 공간을 갖춘 명품 숲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잘 가꿔진 조림지에서 피톤치드와 음이온 등 숲이 지닌 보건의학적인 효과를 활용해 아토피염 등 만성질환을 ‘치유’(治癒)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생·의학분야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치유의 숲’ 사업은 지역의 부존자원과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 산촌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현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착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여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치유의 길’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이 이뤄  
지는 핵심공간인 건강  
증진센터는 미관과 경  
제성을 고려한 목조건  
물로 지어지며, ‘치유  
길’은 훨체어 이용자  
나 노약자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완만  
한 경사도로 동선을 구성하면서도 산림훼손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설치될 계획이다.

◇ 산마늘 등 산림소득 창출=장성군은 영화 '태백산맥' 촬영지로 널리 알려진 금곡 영화마을을 비롯해 모암마을과 대덕리 대곡마을, 추암리 괴정마을 등 축령산 주변 4개 마을을 산촌생태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 2002년 군에서 짓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서삼면 '모암마을 통나무집' (061-393-9605) 4채에는 도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군은 북일면 문암리 편백나무숲 1.3㏊에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울릉도 특산물인 '산마늘' 재배에 나섰다. 올해 숲 가꾸기에 18억3천600만원을 투입해 산촌생태마을과 연계, 70㏊면적에 도라지와 더덕 씨앗을 파종할 계획이다. 특히 편백나무를 활용한 피톤치드 비누 등이 개발돼 본격적인 상품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청 장성군수는 “축령산은 장성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제일원칙은 ‘보전’”이라며 “이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축령산을 전국제일의 ‘치유의 숲’으로 조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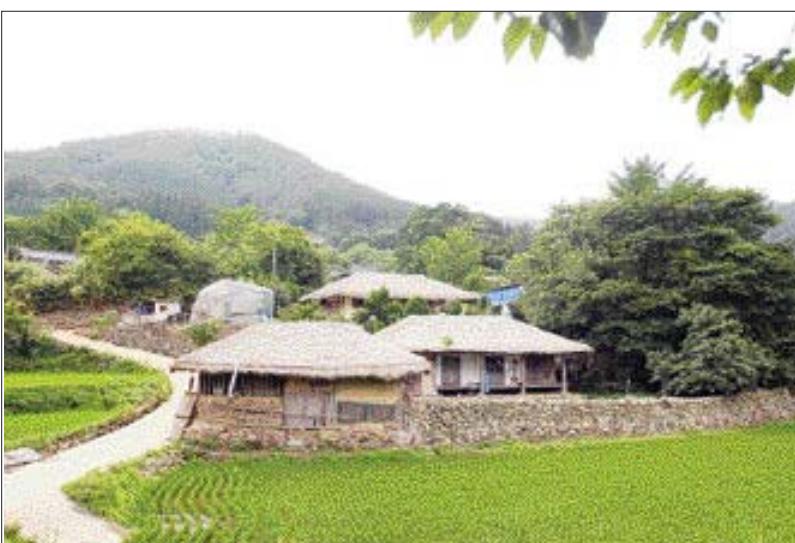
한편 장성군은 다음달 7~9일 축령산 일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편백나무 숲체험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장성 축령산 산수축제'를 개최한다.

로 'O<sub>2</sub> 장성 축령산 산소축제'를 개최한다.

/글·사진=종기동기사 song@  
/점성=류준선기자 vis52@

A wide-angle photograph of a dense forest. The scene is dominated by tall, slender trees with dark trunks and bright green canopies. A paved path cuts through the forest, leading towards a bright, overexposed area in the distance. On the path, two individuals wearing red shirts are walking away from the viewer. The forest floor is covered in a mix of green vegetation and fallen leaves.

수령 30~50년 아름드리 펑백나무숲이 잠과이 잠성 축렬사이 전국 최대규모의 조립 석공지에서 ‘치운이 숲’으로 벼묘하다



영화 ‘태백산맥’ 등이 촬영된 금곡영화마을



문암리 산마늘 재배지